

地方分校 캠퍼스 環境에의 적응*

—地方分校의 現況과 展望(完)—

金 水 日

(延世大 教育學)

地方分校의 現況과 展望

1. 地方分校 캠퍼스의 大學 文化 형성
: 金永根
2. 地方分校의 實驗·實習設備에 관한 분석
: 姜錫泰
3. 地方分校가 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
: 安京植
4. 地方分校에 대한 地域住民의 의식
: 金珍浩
5. 地方分校 캠퍼스 環境에의 적응
: 金水日

1. 序 論

오늘날 우리나라 상당수의 지방분교가 실재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근거(교육법시행령, 제 114조의 2 항)에 따라 정부 당국의 의지와 私學의 속 사정이 일치하는 데서 연유된다.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학 재원의 대부분

이라는 私學의 속 사정과 1973년부터 대도시 지역의 인구 급증을 둔화시키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가 합쳐져 지방 분교가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인구의 지방 분산과 지방 인구의 서울 이입 억제를 목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의 이전 및 지방분교의 설치를 청주 지역을 포함한 대전권, 이리·군산을 포함한 전주권, 구미·경산을 포함한 대구권, 송정·나주를 포함한 광주권 그리고 진주·창원을 포함한 마산권역으로 나누어 권장하였으나 잇따른 정책 변경으로 지방 캠퍼스가 경기, 충청, 경북 그리고 강원 지역에 산재되고 있지만 실제 밀집 지역은 경부선상의 서울 통학 가능 지역에 놓여져 있다.

한편 본교와 분교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horizontal multicampus는 single campus들과의 관계가 대등함을 의미한다. 그 예로서 Rutgers University가 Camden, Newark, New Brunswick의 세 대학 캠퍼스를 받아들여 multicampus로 출발된 데서 연유된다. 이는 학

* 본 연구는 1986년도 문교부 자유 과제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시작되어 1988년 3월에 완료되었다. 특히 김영근, 강석태, 안경식, 김진호, 필자와 공동 연구로 수행된 "서울 지역 소재 대학교의 지방분교 활성화 방안"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지방분교의 현황과 전망"으로 게재한 「대학교육」 기획 연재의 마지막 부분이다.

생의 규모나 교수의 학문적 배경에서 유래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캠퍼스간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차이 있는 특징을 가진 데서 연유된다. 예를 들면 University of Texas 의 Austin Campus 에는 의학 및 보건 분야의 중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며, El Paso 캠퍼스에는 광·공업 계열의 전공 영역이 오래 전부터 설치·운영되어 왔었다.

또한 학생 규모에 따른 균등한 장학금 배정으로 horizontal multiuniversity 의 체제를 세운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의 Albany, Binghamton, Buffalo, Stony Brook 도 좋은 예이며, 캠퍼스 단위의 자금 지원과 독립된 프로그램의 형성과 그 실시가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캠퍼스간에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려는 데서 horizontal multicampus 가 이루어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single campus 간에 수직적·주종적인 또는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vertical multicampus 를 의미한다. 즉 대학원이 있는 대학, 대학원이 없는 대학, 초급대학, 직업·기술전문학교와의 관계에서 종속 관계에 놓여 있는 캠퍼스들이다. 예를 들면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의 캠퍼스 관계는 대학원이 있는 병설 대학이 대학원이 없는 대학과 초급대학, 직업·기술전문대학을 통괄한다기보다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한다. 또한 University of Wisconsin 은 13개의 4년제 대학과 14개의 2년제 대학을 병합하였는데, 이들의 각각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multicampus 이지만, 1차 대전 이후에 박사과정을 개설한 Madison Campus 와 1956년 이후에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Milwaukee Campus 와 1971년에 통합된 Wisconsin State University 와는 대등한 관계이지만 나머지 대학과는 종속 관계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종속 관계에 놓여 있는 미국의 대학 Campus 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의 지방분교, 지방캠퍼스 또는 제2캠퍼스는 대학 본부가 위치한 지역의 캠퍼스에 대하여 종속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종속 관계는 지방분교가 서울 본교에 대하여 비교 하위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교수·학습 환경은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분교 환경

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분교 캠퍼스 환경에의 적응의 측면에서 지방분교, 지방분교 교수, 지방분교 학생으로 나누어 상론된다.

2. 地方分校

지방분교란 제도적으로 볼 때에 “대학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법시행령, 제114조의 2항)는 근거에 의한다. 지방대학(교)과 다르게 표시되는 서울 지역 소재 대학교의 지방분교는 대학 본부가 위치한 대학교의 단과대학이 어느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 명칭을 밝혀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지방분교는 6·25 동란중에 출발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있어 왔다. 즉 1951~'54년의 중앙대학교 이리 분교, 1954년에 설립된 연희대학교 부산 분교 그리고 숭실대학교 대전대학이 숭실대학교로 통합되면서 대전대학이 숭실대학교 대전 분교로 불리어졌었다. 특히 캠퍼스별·대학별 구성에 따른 지방분교의 유형을 구분하여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본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의 어느 한 학과와도 다른 학과만으로 이루어진 단과대학들이 지방캠퍼스에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의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의 약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즉 동일 단과대학의 여러 학과들이 중복되지 않게 캠퍼스별로 분산·설치되어 있다. 둘째, 지방캠퍼스에 여러 대학이 있는데 이들 대학의 구성 학과는 대학 본부가 위치한 캠퍼스의 학과와 다른 학과로 이루어진 대학과 아울러 대부분 같은 학과로 이루어진 분교가 있다. 셋째, 시·군 지역 소재 대학교의 서울 분교가 있는데 이는 경기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서울캠퍼스이다. 또한 지방분교는 지역(방) 명칭의 분교에서 출발되어 지역(방) 명칭의 대학으로 그리고 지방캠퍼스 혹은 제2캠퍼스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원주 분교, 원주대학, 원주캠퍼스이며 이 캠퍼스에는 문리대학,

정법대학, 보건과학대학 그리고 원주의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지방분교는 single campus에서 multi-versity와 multicampus에서 multiversity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Multiversity는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갈래의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한 기능들은 다원적이다. 특히 multiversity는 많은 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리·독립된 집행 부서가 있으며, 재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저해 요인이 되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방분교와 관련하여 제시하던 아래와 같다.

“지방분교라는 조직은 그들 고유의 문화 형성에 주도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자체내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金永根, 1988, p.18).

지역 사회 주민은 지방분교를 설치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분교에 자신의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이는 분교의 교육 효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지만, 좀더 분교가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라면 불식시킬 수 있었던 문제점인 것 같다. 또한 지방분교의 역기능으로 지적된 소비 풍조 조성, 풍기 문란, 애항실 결여 등은 배타적·폐쇄적이었던 소도시에 외지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된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대학으로서는 학생 지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金珍浩, 1988, p.41).

각 지방분교가 지역 사회에서 상호적인 보완 관계를 이루면 임의적(tentative)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는 각 지방분교는 규모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하나의 단위(unit)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각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시설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安京植, 1988, p.25).

환발한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분교에 현대식 실험·실습 시설을 설치해 주고, 좋은 교수들 유치해 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지방이라는 어려운 여건을 최소한도 보상에 줄 수 있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와 교육 및 실험·실습을 하려면 실험·실습 기자재가 필요하므로 기본적인 필수 시설은 갖추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실험·실습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미 설치된 실험·실습 기자재를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임 교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험·실습을 도와줄 수 있는 대학원 학생이 있어야 한다.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는 서울캠퍼스 대학원 학생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姜錫泰, 1988, pp.52~53).”

그러므로 지방분교는 지방 문화의 토양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고, 지역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단위로써 기능할 수 있는 투자가 뒤따라야 하며, 교수 및 학습 활동에 지원될 수 있는 인적·물적 지원이 요청된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는 지방분교가 당해 지역 사회의 요청이나 교수 및 학생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된 것은 아니며, 나아가서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교수·학습 환경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분교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내륙 지역, 산간, 외진 곳, 교통이 불편한 곳에 지방분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미국의 multicampus 체제는 기존 대학이 있는 곳,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수려한 곳, 연구 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동 연구가 가능한 곳에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캠퍼스의 입지적인 여건은 대학으로서의 전문화와 다양성과 협동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우수 학생의 유치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렇게 외지고 황량한 곳에 자리한 지방캠퍼스는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서울과 다른 지역 출신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캠퍼스에 학생들이 없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캠퍼스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이루어져야 할 문화 형성이 어렵다. 즉 신입생에 의한 持入 문화와 지방분교의 실익은 無定型의 문화에다 지리적인 요인들까지 겹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한편 multicampus의 지속적인 성장은 첫째로 산업체가 위치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둘째로

도서관과 교수·학습 환경이 갖추어진 뒤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며, 세계로 오지나 산간 내륙에는 원격 교육(distance education)으로 운영된다. 또한 행정의 지방 위임과 지방 분권화와 관리적의 독립성에서 multicampus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주 정부나 중심 대학이 기존 학교, 대학, 각종 기능·기술 대학을 흡수·통합하여 multicampus 체제로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분교의 신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우리나라에 있어 multicampus는 지방에 분교가 설치된 대학교가 해당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분교에는 단일 단과대학이 아닌 2개 이상의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울의 본교 캠퍼스와 동일한 교명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multicampus는 campus 간의 협력 체제에 의하여 유지·발전되고 있는데 학문적인 협동 프로그램은 어느 캠퍼스와도 중복을 피하고 있다. 또한 캠퍼스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년 평가·관리하고 있다.

특히 multiversity에 대한 single campus와 multicampus는 campus가 위치한 자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multicampus에 있어 그 발전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갖게 된다.

첫째, 새로운 캠퍼스는 오래된 캠퍼스에서 안정감을 빌어 와야 된다. 둘째, 재정적으로 압박 받은 캠퍼스는 풍부한 대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셋째, 교수의 잠재적 가능성은 단일 캠퍼스에서보다 더 큰 대학 체제 속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같은 대학교 교명 아래 서울과 지방에 둘 혹은 세 개의 캠퍼스가 있다. 지방캠퍼스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가 서울캠퍼스와 같은가 또는 다른가 하는 것은 발전의 준거에 비추어 볼 때에 지방분교의 교육적인 고려와 논의의 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캠퍼스끼리 학과가 같을 경우 대학원 진학의 기회가 좁아진다. 만일 지방분교 학생들이 그 지방의 대학이나 서울의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였다면 충분히 진학할 수 있었는데 분교 학생이기 때문에 유익스럽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된

다. 둘째, 같은 학과이면서도 그 학과의 소속 대학이 다른 지방분교 교수나 학생으로서는 학문적 근친 번식이 힘들다. 왜냐하면 지방분교 교수는 계속 정진의 학구적인 연령층이지만 조교와 기능원의 절대수 부족, 시설 부족, 실험·실습의 기자재와 시약의 부족 및 미비, 학문적 정보의 지연, 대학원이 없는 학부 학생 지도 등으로 인하여 학문적인 탐구와 연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셋째, 동일 학과의 캠퍼스별 중복은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기에는 극히 어렵다. 이는 vertical multicampus에서 horizontal multicampus 체제로 전환되어 multiversity로 확대·발전되기에는 지역이 요구하는 특수성이 전제되고 이에 알맞은 학과의 재조정이 요청된다.

3. 分校 教授의 分校環境 적응

지방분교 전임 교수의 학문적인 성장지는 국내의 서울과 국외의 도시 및 도시 근교의 대학촌이었으며 오늘날의 생활 근거지는 서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분교는 그 위치가 단위 지역의 취약 형성과 문화 공간으로서의 구실을 하기에는 외지고, 내륙의 오지에다가 교통이 불편한 먼 곳에 자리잡고 있는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 대상 지역도 있다.

대학의 기능이 연구와 교육과 봉사로 나누어 균형있게 조화되어 가는 일들이라면 그 행위자는 교수이어야 된다. 그러나 교수 행위에 있어 균형과 조화 있는 연구·교육·봉사의 역능 부여는 '높은 임금, 적절한 부가 급부, 즐거운 작업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지방분교 전임 교수는 교육 이외에는 어느 하나도 수행할 수 없는 강습소나 학원 강사의 역할만을 맡고 있다. 왜냐하면 연구와 봉사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부가 급부와 즐거운 작업 조건에 놓여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를 교수 복지 차원에서 분석·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조성이 전공 영역별 서적이 비치된 도서관 확보, 실험·실습을 그런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증

축, 유사 학문의 근친 번식을 피할 수 있는 대학원 설치와 전임 조교제의 도입, 중앙과 지방의 학문적인 정보 교류를 위한 전산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둘째, 봉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이환 사고의 예방이 포함된 교통 편의 제공, 서울과 지방과의 교수 교류제 실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외 연장 프로그램(extra-mural program) 개설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적절한 부가 급부나 즐거운 작업 조건을 논의하기 이전에 사회·경제·문화의 측면에서 교수 복지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즉 교육 시설에는 地籍 시설, 건물 시설 그리고 교수 활동에 적 투입되는 시·정각 시설이 있다. 지방분교의 지적 시설은 비교적 여유있으나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와 시청각 교재 및 교구는 계속 지원이 요청된다. 교수 시설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다. 이는 “양질의 도서관이 없으면 질적인 秀越性を 향상하기 위한 교육은 불가능하며, 나아가서는 우수한 교수 확보도 어렵다”는 지적에서 교수·학습 시설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한편 동일 대학교의 서울과 지방캠퍼스간의 거리감은 다른 대학(교)과의 간격보다도 더 멀지 않나 하고 분교 교수들은 느낄 때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과 지방의 교수를 캠퍼스별로 분리·임용하였었고, 특히 학습 활동에는 제한 규정이 학사 내규에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리·임용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오늘날의 고등교육 동향에 터하여 학사 내규에 관한 논의를 정리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동일 연령 인구중 대학생 인구가 15% 이상 50% 미만이므로 대중화(mass) 단계이다. 둘째, 교육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서 고등교육의 질적 관리를 수월성과 사회적 적절성, 자아 실현과 효율성에 둔다면 고등교육의 질적 관리는 대학의 발전 유형 대학원 중심 대학, 대학원이 병설된 학부중심 대학, 대학원이 없는 대학(教育改革審議會, 1987.2, p.8)에 따라 차이 있게 나타난다. 셋째, 대학간 협력 체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숭전대·중앙대·인하대가 각각 학점 교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는 유능한 교수진의 상호 보완적 활용, 시설, 실험 기구, 도서의 상호 활용, 학문의 개방과 상호 협동의 증진, 폭 넓은 교우 관계, 사제간의 관계 개선, 한국 대학원 교육의 새로운 좌표 설정에의 기여로 진술되고 있다. 넷째, 고등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다른 대학에서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학점 자유 취득제, 다른 대학들과 공동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공동강의제 실시, 전임등록제 기한제(residence requirement period)를 도입하여 전일제(full time)와 정시제(part time)의 병행 실시(教育改革審議委員會 第3分科, 1986.7.15, p.12; 教育改革審議會, 1987, p.63)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측면에 기초하여 지방캠퍼스의 규제 초항인 학사 내규와 교수의 학문적 연구의 계속을 위하여 ‘학생은 계절 학기 수업을 제외하고는 소속 대학 소재지의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연세대학교 교무처, 1987, 이수 과목과 수강 신청관) 하는 규정을 계절 학기 수업과 아울러 학과별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이 보완될 때까지, 그리고 부전공 교과까지를 확대하여 본교와 통합 운영됨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방캠퍼스에는 학과의 제한성과 학과별 학문의 유사성에 따른 복수 전공제의 분교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아가서는 부(복수)전공 영역에 해당되는 학과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원 교육에 지방분교 교수의 제도적인 참여 보장과 분교 학생을 위한 대학원 입학 기회가 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는 지역별 균형에 의하여 보편 교육의 흐름에 따르지만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대학원 교육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교수의 학문적인 전문화는 전공 분야의 심화 수준에서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는 전공 분야가 학생들의 관심이기 이전에 교수들의 관심 영역이기 때문이다. 전공 분야에 대한 학문의 심화 수준을 학부 학생들로부터 환류(feedback)받기에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원이 병설된 지방분교 혹은 대학원 교육에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지방캠퍼스의 육성이 요구된다.

특히 연세대학교 문리대와 경법대의 1986년 2학기 강의 담당 구성비는 지방분교 전임(45%),

시간강사(39%), 본교 전임(12%), 타교 전임(5%)의 순이다. 전임 교수와 시간강사에 의하여 전체 강의 시간의 84%가 충당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수 조건, 즉 복지, 본교와의 관계, 교수 부담의 실제에 비추어 볼 때 본교 교수는 본교 환경에의 적응에 매우 어려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분교, 그중에서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한정하여 볼 때에 본교 교수가 본교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문리대학과 경법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梅芝캠퍼스에서 주로 논의되었으며, 그 논의의 결과가 교수의 뜻으로 모아져서 본교 발전 방안이 교수평의회를 통하여 건의되기에 이르렀다.

학생과 교수의 사기의 양양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에의 공헌 등 기본적인 대학의 기능 달성을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원주캠퍼스 전문위원회가 현재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중임. 현재 검토중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래와 같음(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1988. 11. 19, p. 4)

- 본교와 중복되는 학과를 폐지함으로써 원주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
- 캠퍼스권 서울 근교로 옮김으로써 본교 학생과의 학력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
- 원주캠퍼스에서 교양학부의 교육을 전담하는 방안
- 본교와의 교수 pool 제, 학점 교환제를 실시하는 방안

4. 分校 學生의 分校環境 적응

지방분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구성을 서울과 서울 밖의 지역인 지방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매우 의미있는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지방분교가 있는 여러 대학교 중에서 1987 학년도에 입학한 연세대학교 신입생에 관하여 찾아 보면 지방에 있는 원주 근교의 매지캠퍼스에는 지방 출신보다 서울 출신 학생들(67.5%)이 더 많다. 매지캠퍼스까지의 통학 시간은 서울 시내에서 고

속버스 편으로 그리고 원주 시내에서 버스편으로 편도에 한하여 약 3시간이 소요된다(연세소식, 1987. 3, pp. 6~7).

이와 같은 신입생의 지역별 구성은 지방분교의 문화 환경이 대도시, 즉 서울 지향성이라야 됨을 요구받게 된다. 이는 전국 제 2 캠퍼스 총학생회연합 건설준비위원회(제 2 총련)에서 '대학촌 형성을 위한 지역개발'의 제시, 제 2 캠퍼스의 자립을 위한 1만 명 규모의 종합대 건설 그리고 한 대학내에 동일한 두 개의 캠퍼스가 있을 수 없다(1988. 9. 13 미간행 인쇄 자료 참조)는 캠퍼스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학생회에서는 연세 발전을 위한 우리의 주장에서 '유능 교수 충원, 일반대학원 설립, 증원·증과, 교양 선택 과목 증설, 셔틀버스 운행, 기숙사 증축, 실험 기자재 및 실험·실습비 지원, 복지 시설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1988. 10. 25 벽보에 게시). 누구나 자기 자신이 놓여진 교육·문화적 환경에 완벽한 만족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분교의 실정은 대학 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계속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이러한 지방분교 학생들의 문화적 요구를 지방분교 환경에의 적응과 관련하여 학습 기회의 상실¹⁾, 대학 환경,²⁾ 대학생 문제,³⁾ 대학 생활 만족도,⁴⁾ 귀속 경향⁵⁾ 그리고 진로 경향⁶⁾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學習 機會의 상실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입학으로부터 졸업까지의 기간이 4~8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조기 졸업의 경우는 3년 6개월 정도이다. 4년만에 졸업할 수 없는 이유는 취득한 학점의 미달, 일반 휴학, 입대 휴학 등이 있다. 특히 일반 휴학에서 입대 휴학으로 다시금 복교하여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은 개별 학생에 따라 4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므로 남학생의 경우 병역을 재학중에 마칠 때 약 8년 정도가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기간에 산정될 수 있다. 특히 학습 기회의 상실을

1) 金水日, 1988^a, pp. 146~147.

2) _____, 1988^b, pp. 56~79, 93~96에서 연구 절차 및 내용이 직접 인용되었음.

휴학과 제적으로 나눈다. 지방분교의 측면에서 재수를 위한 휴학과 자퇴 그리고 성적 불량 제적이 학습 기회 상실의 주된 요목이다.

(1) 휴학

학적 변동에 따른 개괄적인 내용은 연세대학교 문리대와 경법대의 경우 재적생에 대한 재학생의 구성비가 1986년의 경우 약 70% 정도이고, 재적생에 대한 휴학생은 7~30%까지이지만, 1학기에 비하여 2학기에는 더 높고, 학년간 재학생의 변동은 2~3학년 사이가 가장 심하다. 그러나 휴학생 141명 중에서 23.4%인 33명은 재수를 위한 휴학과 다른 대학에의 입학 시도가 여의치 않을 때에 다시금 복교하는 사례도 있다.

(2) 제적

제적은 입학한 대학에서 학생의 신분이 계속되거나 유예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제적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학생 자신의 뜻에 따라 제적된 사유는 자퇴, 미등록, 미복학이다. 둘째, 학생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입학 취소, 성적 불량, 징계이다. 셋째, 본인도 그리고 대학 당국도 바라지 않았던 불가피한 사유는 사망이다. 이와 같은 제적 사유의 세 가지 해석 준거에서 1981년 1학기부터 1987년 1학기초까지의 기간중 연세대학교 메지캠퍼스에서 제적된 학생은 435명이고, 학생 자신의 뜻에 따라 제적된 사유에는 미복학 141명(32%), 자퇴 96명(22%), 미등록 74명(17%) 순이며, 학생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적된 수는 재적생 전체의 1/4에 해당되는데 이는 성적 불량 121명(28%)이며 또한 입학 취소도 약간 명이 포함된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제적은 사망으로서 2명이다. 특히 435명의 제적자 중에서 96명의 자퇴자(22%)와 121명의 성적 불량 제적자(28%)는 지방분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2) 大學 環境

학문 지향과 캠퍼스 士氣로 구성된 대학 환경은 학년별 기숙 상황에 따라 분류되었다.

(1) 학문 지향

캠퍼스별 학문 지향성은 F 검정 결과 학생의 학문적 능력 발휘를 위한 교수의 압력과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만 학점이 잘 나온다는 문항에 5% 유의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또한 분야별로 지명한 교수, 학기마다 새롭게 바뀌는 교재, 학문적으로 어려운 강의일수록 열심히 공부하는 항목에 1%의 의미 있는 차이로 반응하고 있다. 특히 학년별 학문 지향성은 5%의 유의 수준에 이른 문항이 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문적으로 어려울수록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의미를 더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 문항별 평균에서 많은 준비가 요구되는 교과목의 특성,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취와 논리적 타당성이 적용되는 학업적 풍토, 심각한 학습 자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숙 상황별 학문적 지향성은 자취나 월식 생활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문적인 성취 의욕, 열성 있는 수강 상태, 노력과 학점과의 정적 관계, 심각한 학습 수용 자세에 약간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문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수의 압력이 가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준비를 요하는 수강 자세, 평가의 타당성 인정, 학기마다 바뀌는 교재 그리고 학문적 심화에 깊이 있는 사려성의 요구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캠퍼스 士氣

캠퍼스 생활에 있어 사기는 대학 행사에의 열성적인 참여, 인간으로서 윤리·가치·정의 등의 관계, 학생으로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에 따르게 하는 압력, 가정에서처럼 학교에서도 진실되게 느끼는 대학 정신에 대하여 1% 유의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항 이외에 다정한 느낌이 드는 강의실 분위기에 같은 유의 수준으로 약간 높은 평균을 보인다. 학년별 캠퍼스 사기는 1학년과 2학년 모두 다정한 느낌이 드는 강의실 분위기에 5% 유의 수준을 반응하고 있으며, 3학년은 학교 행사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학생 상호 간의 진실한 애정을 느끼며, 공감하는 대학 정신에 약간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학년의 경우는 인간의 가치관·윤리·정의 등의 상호 관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약간 높게 반응되고 있다. 기숙 상황별 캠퍼스 사기의 반응은 강의실 분위기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

동에 5% 유의 수준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이는 하숙이나 기숙사 그리고 자취나 월식 생활 중인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보다 약간 높은 평균을 보인다.

3) 大學生 문제

학년별·기숙 상황별 학교 생활과 성격 특성, 가치관, 미래관으로 나누어 각각 F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생활

유의 수준은 1%이지만 기숙 상황에서는 5%인 문항은 학구적인 대학 분위기의 결여와 전임 교수의 부족이다. 특히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학과, 학구적인 분위기가 결여된 대학, 부족한 전임 교수, 교수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학생들의 예의, 공정하지 못한 성적 평가, 미비한 대학 시설, 진실한 친구와 교제하기 어려움, 출신 고등학교간의 짝은 파벌 의식, 여가 선용을 위한 적절한 장소가 없음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년별 분석에 비추어 볼 때 의미 있는 차이를 찾기에에는 어려우나 4학년은 학구적인 대학 분위기의 결여, 교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예의, 공정하지 못한 성적 평가, 대학으로서 미비한 시설, 친구를 사귀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1~2학년은 전임 교수의 부족, 출신 고등학교간의 짝은 파벌 의식, 여가 선용을 위한 적절한 장소가 없음,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가끔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숙 상황별 학교 생활에 관하여 해석하면 자기 집에서, 즉 자택, 월식이나 자취 생활보다 하숙 혹은 기숙사 생활의 경우가 모든 문항에 약간씩 높게 반응하고 있다.

(2) 성격

성격 특성에 있어 어느 쪽에서도 유의 수준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각 문항의 특성에 차이 있는 검정의 확인보다 평균에 더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매사에 주의 집중이 어렵고, 남을 잘 의심하며 인내심이 부족하고 남을 잘 이해하며 불쾌한 경험을 얻을 수가 없는 문항에 약간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학년별 성격 특성은 4학년의 경우에 있어 의심하고 냉

정하고 쌀쌀함에 약간의 차이 있는 평균이 있다. 3학년은 자신을 잃고 열등감을 느끼며 불쾌한 경험을 얻을 수 없으며 그리고 트집을 잘 잡는 다에 평균치가 다소 높게 반응하고 있다.

기숙 상황별 성격 특성은 하숙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주의 집중의 어려움, 흥분을 잘 함, 인내심의 부족, 트집을 잘 잡는 다에 약간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3) 가치관

학생들의 가치관은 인간의 존엄성 말살에 5%와 사치 풍조가 심함에 1% 유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족과의 종교 차이와 양심대로는 어려운 삶이라는 항목이 약간 높다. 한편 학년별 가치관의 의미 있는 차이는 별로 찾을 수 없으나 평균치에서 약간의 차이 있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즉 가치관의 차이있는 종교, 말살되어 가는 인간의 존엄성, 심한 사치 풍조, 규범으로 인한 행동의 부자유, 짝은 배금주의 사상 그리고 깨져가는 가정 윤리이다. 또한 기숙 상황별 가치관에서는 심한 사치 풍조와 청빈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항목에 5%, 그리고 말살되어 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규범이 많아 행동의 부자유에 1% 유의 수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택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실력만으로는 출세하기 어렵고, 짝은 배금주의 사상에 약간의 높은 평균을 나타내는 반면에, 월식이나 자취 생활을 하는 학생은 가족간의 차이 있는 종교, 심한 사치 풍조, 양심대로 살기는 어려운 삶 그리고 깨져가는 가정 윤리에 높은 평균을 보인다.

(4) 미래관

미래관에 있어 졸업 이후 취업,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자신 없는 취직 시험, 빨리 출세할 수 있는 방법, 두려운 2천년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생활 위협의 항목에 약간의 평균이 높다.

학년별 학생들의 미래관은 4학년의 경우 취직 걱정과 출세 방법 및 좌절이다.

한편 기숙 상황별 미래관에 있어 월식이나 자취 생활을 하는 학생은 하고 싶은 일도 많으면서 생활의 위협도 받고 있다에 약간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4) 大學 生活의 滿足度

다른 학생과의 만족스러운 관계, 교수 방법의 만족 그리고 학문적 측면 이외의 갈등에 대한 대학의 책임에 5% 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학의 물리적 환경인 시설에 대한 만족에 1%의 의미를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음, 강의 내용에 만족, 교수 방법에 만족, 평가 방법에 만족 그리고 학문 이외의 갈등에 대한 대학 당국의 책임에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학 시설, 다른 학생과의 관계, 학문적 만족, 학문적 갈등에 대한 대학의 책임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생의 기대에 조준된 학문적 측면과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한 만족도는 3학년이 약간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나, 학문적 측면과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한 만족 수준은 4학년의 평균이 약간 높게 지적되고 있다. 특히 캠퍼스의 시설에 관하여 만족하고 있다는 반응은 기숙사나 하숙생의 경우 약간 높으며, 이들은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5) 大學生의 歸屬傾向性

(1) 학업 성취

학업 성취의 원인에 있어 72% 긍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 성취의 성공 원인은 내가 노력하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패의 원인으로는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게을렀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 교수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 성공의 경우는 72% 긍정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실패의 경우는 5% 유의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성공보다 실패가 상당히 높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노력하지 않는데 60%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기회가 오지 않았고 성격이 나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성공의 원인은 기회도 왔으며 노력도 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성격도 좋았고 교수가 훌륭하였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3)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다른 학생과의 교우 관계는 72% 긍정 결과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패

보다 성공한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상대의 성격이 좋았고 노력도 하였으며 자신의 성격도 좋은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편 교우 관계의 실패 원인은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성격에 결점이 있으며 상대의 성격이 사귀기 힘들었다는 내용의 순이다.

6) 進路 傾向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분교는 그 상대가 서울 본교와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해당되는 9개 지방분교와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지방에 있는 종합대학과 단과대학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분석·해석하면 아래와 같다(리크루트, 6(56), 1987.5, pp.57~61).

첫째, 지방분교 졸업생의 취업률(61.4%)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73.5%)와 대학(63.4%)에 비하여 낮으나, 지방에 있는 대학교(59.7%)와 대학(54.0%)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진학은 위의 취업률 경향과 비슷하다. 즉 지방분교 졸업생의 진학률(5.2%)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12.6%)와 대학(7.2%)보다 낮고 지방의 대학교(4.8%)와 대학(4.9%)보다 높다. 그러나 1988학년도 연세대학교 문리대학과 경법대학 졸업생의 약 3분의 1이 서울 본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셋째, 해외 유학은 지방분교 졸업생이 지방의 대학(0.1%)과 같은 수준이며, 서울(0.8%) 및 지방(0.4%)에 있는 종합대학교와 서울에 있는 단과대학(0.4%)보다 낮다. 넷째, 군 입대자는 지방분교 졸업생(14.7%)이 전국 대학(교)의 평균(10.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지방 분교별 졸업생의 취업률은 연세대 원주(87.7%), 고려대 조치원(78.3%), 한양대 반월(77.1%), 경희대 수원(74.5%) 캠퍼스만이 70%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어대 용인캠퍼스는 진학률(11.2%)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에 지방분교 학생이 지방분교 환경에의 적응은 서울 문화의 지방분교 이입, 학문적인 캠퍼스 문화의 형성, 대학다운 대학 환경 형성, 교수 및 학습 활동 지원 그리고 다기능 종합대학교로의 발전이 이야 된다는 아래의 선행 연구에 요약된다.

첫째, 서울 문화의 지방분교 이입이 요청된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인구의 23.6%, 금융 기관 점포의 41.6%, 은행 예금의 61.6%, 법인세의 71.8% 그리고 자동차의 40%를 점유한 서울(조선일보, 1987. 7. 2, p. 5)에 있는 대학교의 지방분교는 서울 문화와의 공유 형태에 의하여 지방분교 환경에 적응된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분교 학생이 서울 지역 출신이다. 둘째, 지방분교 학생들에게 '연구와 독서 또는 학구적인 방향으로 유도되는 학문적인 캠퍼스 문화의 형성과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적 문화와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유희적인 문화'를 형성하도록 대학 시설의 확충과 정보 체제의 정확·신속성과 여가 선용의 공간 배려는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다운 대학 환경은 '학구성, 실용성, 공동사회성'을 통하여 인간 관계와 개인의 성장과 발달, 기관과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대학 환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방분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 인생 주기의 측면에서 대학생이라는 발달 단계의 특성 그리고 학습 환경의 미비 때문이다. 인구 밀도가 보통 이상이고 지리적인 측면에서 통학하기에 편리한 곳에 대학을 설립한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는 판이하게 다른 곳에 지방분교를 설립하였다. '자기가 자란 가정에서의 해방, 친숙한 이성 관계의 설정, 동료 집단간의 수용과 참여, 금전 관리의 훈련 등을 통하여 성인으로서의 준비 단계인 대학생'의 발달 과업이 배려되지 않았다. 교육공학적인 시설도 안 된 대형 교실에서 뒷받침하는 조교 제도의 확립도 없이 몇 백 명을 상대로 하는 수업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방분교의 학습 환경이다. 넷째,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대학이 학교와 학술원의 중간적 존재라면 문화 요소의 수렴과 통합과 배분의 주축(pivot)인 지방분교 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도 없고 전문적 지식을 제공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가정과 학교어로 단자 진동의 이동(pendulum mobility)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교 학생은 장거리 통학에 의하여 학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지방분교가 다기능 종합대학교(multi-versity)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간 협동

체제와 서울 캠퍼스와 프로그램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예로서 미국 중부 지역의 10대 주립 대학교와 Chicago 대학교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협동 프로그램의 참여와 활성화는 대학간 협조와 협동이 중대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일단 지방분교를 인정했으면 조속히 단위 캠퍼스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전교생이 5,000 명선은 유지되도록 지원하여야 된다. 또한 대학 진학 희망 인구와 이름 있는 지방분교와의 관계에서 그 무엇인가 대학의 발전 과정을 찾아야 되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게 된다.

5. 結論 및 提言

1) 結 論

지방분교, 교수, 학생으로 나누어 살펴 본 지방분교 캠퍼스 환경에의 적응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집약된다.

(1) 지방분교

첫째, 서울 인구의 지방 분산과 지방 인구의 서울 집중 억제를 지방분교 정책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지방분교에 지방 출신 학생보다 서울 출신 학생이 많으며 대부분의 분교 학생이 통학을 하면서 재학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분교에 지방 출신 학생이 재학하여 지방분교가 발전 가능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방분교가 위치한 시·도에는 인구 감소의 경향이 뚜렷하며 나아가서는 당해 지역 출신 학생의 감소화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지방분교의 교육적인 인조 환경(man-made educational environment)은 더욱 개선·보완·확충을 요구받고 있다. 대학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취락 형성의 개발을 통한 대학촌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대학내의 소규모 사회와 같은 의도적인 집중 투자가 뒤따라야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교수·학습 환경의 공간적인 배정과 언제 어디서든지 생활과 학습이 직결될 수 있는 교육공학적인 시설과 조교 및 실험실 기사의 배치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분교 캠퍼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식은 상반된 양극 현상을 노출하고 있다. 지방분교가 최소한 지역 주민에게는 매우 유익한 존재로서 앞으로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받는다는 전제 밑에 지역 주민의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지방분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녀를 지방분교에 취학시키는 데는 부정적이다.

네째, 오늘날의 지방분교는 서울 본교와 비교해서 분명히 종속적인 또는 주종적 관계의 대학(vertical multicampus)이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부 지원과 대학 본부의 후원에 의하여 언젠가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의 복합캠퍼스(horizontal multicampus)로서 다가능대학교(multiversity)로 발전될 계획의 수립과 진행이 요구된다.

(2) 지방분교 교수

지방분교의 교수는 학문적인 배경과 학구적인 잠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교수는 학자이며 학자는 학문적인 후진을 길러야 된다.

그러나 대학원이 없는 지방분교의 교수, 학문적인 몰두에의 계기 마련인 시설과 환경이 미진한 곳에서 생활하기는 체념 상태에 빠져 있는 지방 캠퍼스의 교수, 지방분교 주변의 지역 사회와는 문화적인 유대감을 누릴 수 없는 그리고 지리적인 거리가 너무나 먼 곳에 처해 있어서 사회적 봉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지방분교의 교수이다. 이와 같은 교수의 직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분교에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해당 학과별·캠퍼스별 교수의 분리에서 통합되어야 하고 교수 연한에 따라 연구 실적에 맞추어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의 균등한 참여 기회가 본교 교수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 지방분교 학생

첫째, 대학 환경의 일부인 학문 지향성을 보면 학문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수의 압력이 가하여지고 있는 분교 학생이다. 이는 분교 학생들이 많은 학습 준비를 요구당하는 수강 자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생 문제를 학교 생활, 성격, 가치 미래로 나누어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대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에서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학과, 학구적인 분위기가 결여된 대학, 부족한 전임 교수, 미비한 대학 시설, 여가 선용을 위한 대학 환경의 공간 부족 등의 불만을 노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대학생의 성격에 있어 지방분교 학생은 매사에 주의 집중이 어렵고 남을 잘 의심하며 인내심이 부족하고 남을 잘 이해하며 불쾌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문항에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다.

가치에 관한 문항 중 인간의 존엄성 말살과 사치 풍조에 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의 종교 차이와 양심대로 살기는 어려운 삶이라는 항목에 대하여 약간 높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 관하여는 졸업 이후의 취업,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출세할 수 있는 방법, 두려운 2천년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생활 위협에 높게 반응하고 있다.

세째, 대학 생활의 만족도에 관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으며 강의 내용·교수 방법·평가 방법에 만족 그리고 학문 이외의 갈등에 대한 대학 당국의 책임에 높은 반응을 보인다.

네째, 대학생의 귀속 경향은 학업 성취, 교수와의 관계,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학업 성취에 관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교수들과의 관계는 재학중인 학생 모두가 실패한 쪽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기회가 오지 않았으며 자기 자신의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는 모두의 재학생이 성공한 쪽으로 높게 반응하고 있다. 성공의 원인은 상대의 좋은 성격, 노력 그리고 자신의 성격에 기인하고 있으나, 실패의 경우는 노력하지 않았고 자신의 성격에 결함이 있었으며, 상대방의 성격이 너무나 사귀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2) 提 言

지방분교의 발전을 위함은 계속적인 성장을 뜻한다. 이는 고등교육 수준에서 지방분교라 함은 대학으로서 지역 사회의 문화·경제·환경적

응 그리고 지역 주민의 참여 등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교의 분교 외적인 요소와 지방분교와 본교와의 관계, 지방분교 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지방분교 캠퍼스 환경에의 적응' 연구 결과로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교 외적인 변인

① 지방분교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교의 요구를 정부 당국은 수용하여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교는 지방 학생보다 서울 지역 학생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지방분교의 외곽 환경과 교통 시설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나아가서는 지방분교의 주변을 대학 문화 창출의 요람으로 단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지방분교의 증원·증과는 고등교육의 기본 단위로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어야 하겠다. 이는 지방분교이기 때문에 도구 교과와 부족과 부전공을 택할 수 있는 학과의 한계성이 있고 나아가서는 필수 교과보다 선택 교과의 폭이 좁기 때문에 전인적인 인격 도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지방분교가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은 산업체와의 공동 학습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동 과제 수행에 어려운 현황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다학문간 접근에 의하여 지방분교를 활성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

③ 지방분교의 자연과학 계열에는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이공 계열 학과의 교육 투자는 사립대학의 재원으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없는 한계의 벽에 부딪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기업주의 기여금, 제한된 소규모의 기부금 입학 허용제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④ 지방 문화와 지방분교 캠퍼스는 문화와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다. 전국이 도시적 대중 문화에 의하여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분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의 持入 문화가 지방 문화와의 교호 작용 과정에서 서울의 분재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⑤ 지방 주민의 지방분교에 대한 차등 의식을 불식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지역 사회 주민으로서는 지방분교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

응을 나타내면서도 그들의 자녀를 지방분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반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분교와 본교와의 관계

① 지방분교의 시설에 대한 서울 본교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계속 요청된다. 이미 설립·운영중인 지방분교라던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용 실험실, 교수연구실, 대학원 연구실, 행정관리실, 부설연구소 등 교육·연구 시설과 대학본부, 도서관, 대학 강당, 박물관, 중앙전산실, 체육관, 학생회관, 기숙사 등의 지원 시설이 종합적 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제시되어야 하겠다. 지방분교의 광활한 地籍 시설에 비하여 교육 연구 시설과 지원 시설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시설 투자에 따른 교육 효과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일 수단은 없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이 요구된다.

② 캠퍼스별 동일 학과의 설치·운영에 따른 교수 요원의 풀(pool)제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특히 교수의 계속적인 학문적 성장은 교수 활동의 폭을 넓혀야 되겠고 교수 행위의 질적 향상은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지방분교의 발전은 우수 교수의 확보가 주요 과제이지만, 캠퍼스별 동일 학과의 분리 임용은 학문적인 배경이 비슷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연구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③ 지방분교 캠퍼스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계절 학기 이외에 복수 전공과 아울러 미비한 실험·실습 시설의 경우에 서울 본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특히 서울의 본교와 이웃하고 있는 대학간의 학점 교류제가 대학원 수준에서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교 재학생의 서울 본교 수강 기회를 제도적으로 봉쇄함은 캠퍼스별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고등교육 수준에서 전일등록생 기한제(residence requirement period)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복수 전공 희망자를 서울 본교에서 수강 기회를 갖게 함은 의미있는 것이다.

④ 지방분교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 기회를 배려하여야 되겠다. 졸업생의 전로에 있어 기간 학제에 속한 계속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학은

지방분교의 경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학사 편입과 특수대학원 입학이 있겠으나, 본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접근 기회를 서둘러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⑤ 앞으로의 신설 학과는 캠퍼스별로 같은 학과보다 다른 학과로 설치되면 지방분교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겠다. 캠퍼스별 특수성도 고려되면서 멀티캠퍼스(multicampus)에서 멀티버시티(multiversity)의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대학원 진학 기회도 넓힐 수 있으며 교수의 학문적인 독자성도 지닐 수 있겠다.

(3) 분교 내적인 변인

① 지방분교 교수의 연구 및 봉사 활동 참여 기회 상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시설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였거나 주요 외국의 대학촌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한 지방분교 교수는 지방분교가 위치한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지방분교 교수는 학부 수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특수대학원 강의, 대학원 강의, 논문 지도, 유관 기관과 교수로서의 자문 기회 등을 갖기 어렵다.

② 지방분교 교수는 강의 계획서 작성, 강의, 평가, 우편함 점검, 전화 메모의 기록, 자료 복사, 도서 대출 등 모든 학내 업무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지방분교의 열악한 교수 환경 조건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는지 방문하여 보아야 될 과제이다. 그러므로 지방분교 교수에 대한 지원 인력의 배정은 시간을 다투어 요구되는 사항이다.

③ 지방분교는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교외 연(확)장 프로그램(extension and/or extramural programs)을 개설하여야 되겠고 야간 대학원을 설립하여 유관 인사의 학위 추구 과정을 개설하여야 된다.

④ 지방분교는 지방분교 재학생에게 학업적인 가치관에 젖어둘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되겠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소속감이 결여된 상태에도 있

어 보았고, 2천년대가 두려워만 보이는 지방분교 학생에게 캠퍼스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⑤ 지방분교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는 교수와 학생 모두가 바라는 바이며 구체적인 계획의 입안시에는 지방분교의 유관 인사가 참여하고 나아가서 공동의 지혜와 사고가 집약되어야 하겠다. 지방분교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계획은 서울 본교와의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점진적인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다. *

<參考文獻>

<기초자료>

교육개혁심의회, 제2차교육개혁종합보고서, 1986. 10 ~ 1987. 2, 1987.

교육개혁심의회위원회 제3분과, 고등교육의 개혁방향과 전략, 제2호, 1986. 7. 15 의결(제17차), 1987.

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001호(1986. 12. 1).

대학설치기준령, 대통령령 제1153호(1983. 6. 25).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6.

<연세대학교 자료>

연세소식, 서울: 연세대학교기획실, 1987. 3.

연세대학교 교무처, 학사에 관한 내규, 연세대학교 대학안내, 1987, 1987. 2, pp. 98~103.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학생회, 매지캠퍼스 발전을 위한 우리의 주장, 교내벽보, 1988. 10. 25.

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 원주캠퍼스 전문위원회, 원주 캠퍼스 장래의 방향설정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안, 1988. 10. 27.

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원주캠퍼스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신임증장에의 건의, 연세평의, 제21호, 1988. 11. 19.

<문헌>

金炳熙, 동요하는 地方大學캠퍼스, 新東亞, 30(7), 1987. 7, pp. 396~403.

金水日, 서울地域 소재 大學校의 地方캠퍼스의 現況과 展望, 延世論叢, 第24輯, 1988°.

地方分校 캠퍼스 環境適應, 서울地域 소재 大學校의 地方分校 活性化 方案, 1988^b.

金永根, 地方分校 캠퍼스의 大學文化 形成, 서울地域 소재 大學校의 地方分校 活性化 方案, 1988.

金永哲·孔銀培, 大學施設基準研究, 서울: 韓國教育

- 開發院, 1981.
- 金玉煥, 大學論, 서울: 文音社, 1983.
- 金珍浩, 地方分校 캠퍼스에 대한 地域住民의 意識, 서울地域 소재 大學校의 地方分校 活性化 方案, 1988.
- 朴東緒, 韓國大學機關別 評價의 實際와 問題, 大學教育, 25, 1987.1, pp.23~27.
- 朴奉穆, 韓國 大學教育의 危機, 大學教育, 12, 1984.11, pp.58~62.
- 朴秀根, 大學 分校의 編制에 관한 研究, 서울: 東國大學校, 1981.
- 徐永鈞, 大學分校 무엇이 문제인가, 政經文化, 1986.5, pp.375~383.
- 安京植, 地方分校 캠퍼스의 地域經濟 發展에의 기여, 서울地域 소재 大學校의 地方分校 活性化 方案, 1988.
- 이돈희·김희복, 대학의 전통과 현실, 서울: 한국경신문화연구원, 1984.
- 李相周, 大學文化의 未來, 大學教育, 17, 1985.9, pp.33~37.
- 劉仁鍾 外, 大學間 協力體制에 관한 研究, 서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3.
- 전국 4년제 대학(교) 86 학년도 취업 현황, 리크루트, 6(56), 1987.5, pp.57~61.
- 전국 대학교 제2캠퍼스 총학생회 연합회 건설준비위원회, 제2총연건준위 실무회의 보고서(8차), 전국대학교 총주캠퍼스, 1988.9.13.
- 鄭元植, 大學教育과 環境, 大學教育, 12, 1984.11, pp.48~52.
- 조선일보, 지방자치제, 1987.7.2(木), 16版, 5면.
- 黃碩奎, 大學環境의 社會-心理的 特徵 研究, 서울: 高麗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1982.
- Buck, P., Libraries and Universities, Addresses and Report,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4.
- Eurich, N.P., Systems of Higher Education in Twelve Countrie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1.
- Hutt, M., "Undergraduate and their Problems," D. Daiches(ed.), The Idea of A New University, An Experiment in Succes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4.
- Kemerer, F.R. & Baldrige, J.V., Union on Campus, San Francisco: Jossey. Bass Publishers, 1976.
- Kerr, C., The Uses of the Univers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82.
- La Noue, G.R. & Smith, B.L.R., The Politics of School Decentralization, Lexington, Mass.: D.C. Heath and Company, 1973.
- Lee, C. & Bowen, F.M., Managing Multicampus Systems, San Francisco: Jossey. Bass Publishers, 1975.
- Trow, M.,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 Politics for Higher Education, Paris: OECD Press, 1974.